



안쿠시의 이야기

연령대: 40~55세

직업: 소매업

구사 언어: 영어 및 편자브어

5년 전, 41세였던 안쿠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식을 접했다. 그는 고콜레스테롤 진단을 받았다. 호주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이민자로서, 해당 진단은 본인의 장기적인 심장 건강과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하니까 그 비용이 걱정되었어요.”라고 안쿠시는 설명한다. “하지만 일괄 청구를 해주는 지역 일반의 클리닉을 찾게 되어 마음이 놓였어요.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때문에 정말 크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안쿠시는 정기적인 일반의 진료와 치료 계획을 재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건강 목표를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믿는다.



“비용 걱정 때문에 일반의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많은 클리닉에서 일괄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 검진은 장기적인 복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쿠시



상세정보를 보려면 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인근에서 일괄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찾으려면,
[health.gov.au/bulkbilling](https://www.health.gov.au/bulkbilling)에서 확인하세요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